

# 향후 포장기술사에 도전하고 싶어...

한 병 희 /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연구원



(사)한국포장협회가 3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11주간 실시한 제15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 결과,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한병희 연구원이 총 52명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교재의 광범위한 포장 관련 이론내용을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새로우면서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음료팀에서의 2개월과 포장연구팀에서의 5개월 동안 배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선배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연구원은 총 100점 만점에 94.6점을 취득, 1등으로 수료, “나름대로는 열심히 임하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며 “미비한 답안지에도 좋은 평가를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올해 2월, 롯데 중앙연구소에 입사한 그는 현재 ‘ASIA TOP3 GLOBAL FOOD FRONTIER’라는 공통된 목표로 약진하고 있는 롯데 중앙연구소내의 제1연구부문 포장연구팀에서 연구 중이며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PACKAGING 영역에서 가까운 미래에, 보다 새롭고 안전하며 쉬운 포장의 개발을 위해 열심히 기초를 닦고 있다.

포장연구팀에 배치되면서 패키징의 기본과정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제15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신청하게 된 한병희 연구원.

그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 대해 “교재 내용이 기초적인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포장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항상 옆에 두고 읽기에는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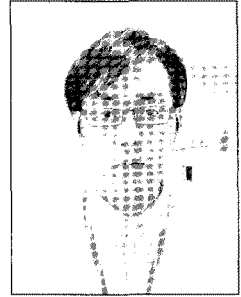
한 연구원은 포장기술관리사 통신 교육의 교재를 앞으로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읽는’ 교재 보다는 ‘보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포장이라는 분야에서 일하는데 있어 포장기술관리사 과정은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11주간 읽고 보고 작성한 내용을 상기하여 기본을 잊지 않고 더 발전하는 연구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포장기술사에도 도전하고픈 목표를 갖고 있다.

한 연구원은 패키징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패키징 분야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적인 포장 인재를 육성하는데 업계나 단체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패키징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업계 발전을 이끌어 나갈 포부를 갖고 있는 그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

## 패키징 전문교육 다양해 지길...



정성용 / 샘표식품(주) 식품안전연구센터 대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수성적이라는 연락을 받아 조금은 당황스럽고 약간은 부끄럽네요. 저 보다도 더 열심히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을텐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93.5점을 획득 총 52명 수료자 가운데 2등으로 수료한 정성용 씨는 현재 샘표식품(주) 식품안전연구센터에서 포장재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포장관련 일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됐다는 정성용 대리는 회사 포장 관련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포장에 대해 많은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포장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다 포장관련 교육이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실무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신청하게 됐다.

전문적인 이론 및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해 응시하게 됐지만,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11주 동안 매주 답안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회사 업무와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터. 그는 매주 답안을 작성하는 일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각 과정을 통해 현

재 실무와 연관지어 적용하고 다뤄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정성용 대리는 현재 많은 위해성 물질에 대해서 이슈화 되고 이와 관련된 범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교재에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과거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이 아쉬웠다고 전하면서 향후 교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수정, 내용 업데이트가 이뤄져 패키징 분야의 현실을 발빠르게 적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샘표식품(주)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리는 최근 들어 환경문제(저탄소 녹색성장)와 더불어 포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이 너무 없는 점이 많이 아쉽다며 앞으로 포장관련 교육이 보다 세분화 되고 많은 교육 진행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이 포장관련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 통신교육 통해 패키징 기초 다질 수 있어

김영건 / 화인어메리카 구매팀

(사)한국포장협회가 실시한 제15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화인어메리카 구매팀 김영건 씨가 총점 100점 만점에 90.2점을 획득해 52명의 수료자 가운데 3등으로 수료했다. 김영건 씨는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하신 제15기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포장관련 업무를 하면서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 통신교육을 신청하게 됐는데, 실무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 정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건 씨는 미국 샌디에고에 본사를 두고 멕시코 티후아나에 현지 공장이 있는 화인어메리카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 Packaging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LG 등 국내 업체의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업체들과도 경쟁력있는 프로모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그는 국내 제조업체들도 품질, 단가 등 경쟁력으로 보다 많은 비즈니스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그는 한국 내 제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애착과 신념을 갖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패키징 업계 역시 보다 더 세분화되

고 다변화되는 제품군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대한민국의 제품은 높은 품질과 경쟁력있는 단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보다 해외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와 시장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시작으로 국내 패키징업계 발전을 위해 한걸음씩 노력해 나갈 그의 발전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